



2014년 10월 6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분석 | 안 혁 ☎ 3276-6272
 파생/ETF | 강송철 ☎ 3276-6181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 레 디트 | 김기명 ☎ 3276-6206



• KIS WEEKLY STRATEGY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 : 11월 4일 중간선거

• 이머징마켓 동향

달러 강세 및 정치 불안감에 인니증시 급락

• 전일 시장 특징주 및 테마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태광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LG생활건강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디스플레이, 자동차, 만도, 메리츠화재, 모두투어, SK브로드밴드, 스카이라이프, GKL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25(목)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34.11	2,031.64	2,026.60	2,020.09	1,991.54	1,976.16
	등락폭	-1.53	-2.47	-5.04	-6.51	-28.55	-15.38
	등락종목	상승(상한)	357(4)	305(2)	255(1)	395(4)	190(6)
		하락(하한)	452(2)	499(0)	576(4)	440(0)	648(0)
	ADR	97.85	93.25	89.06	88.32	85.38	88.02
	이격도	10 일	99.60	99.53	99.33	99.12	98.06
		20 일	99.18	99.14	99.01	98.83	97.62
	투자심리	50	40	40	30	20	20
	거래량 (백만 주)	325	314	340	323	352	319
	거래대금 (십억 원)	4,767	3,924	4,482	4,736	4,441	4,637
코스닥	코스닥지수	577.48	577.66	569.27	573.22	566.99	569.84
	등락폭	-2.94	0.18	-8.39	3.95	-6.23	2.85
	등락종목	상승(상한)	357(6)	305(11)	255(6)	395(7)	190(7)
		하락(하한)	452(5)	499(1)	576(3)	440(2)	648(1)
	ADR	94.47	92.45	88.80	87.00	82.95	86.38
	이격도	10 일	100.38	100.29	98.77	99.44	98.50
		20 일	100.86	100.81	99.33	99.99	98.93
	투자심리	50	40	40	30	20	20
	거래량 (백만 주)	434	398	409	387	388	329
	거래대금 (십억 원)	2,649	2,267	2,389	2,390	2,595	2,10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47.0	1,179.6	1,368.2	199.5	197.7	368.9	109.6	42.1	450.443
	매도	1,946.4	1,547.6	1,126.9	214.7	218.5	215.2	80.8	49.1	348.6
	순매수	100.6	-368.0	241.4	-15.1	-20.8	153.6	28.8	-7.0	101.9
	10 월 누계	245.0	-565.4	276.5	14.7	-5.2	162.0	-12.7	-11.1	128.9
	14 년 누계	-28.4	6,935.7	-5,521.5	-3,158.8	572.8	-2,893.4	-542.0	-2,010.9	2,510.9
코스닥	매수	1,803.1	169.3	144.9	34.9	20.7	42.6	12.7	3.6	30.3
	매도	1,864.9	133.4	117.7	35.2	12.7	30.0	10.2	2.5	27.2
	순매수	-61.8	35.9	27.2	-0.4	8.0	12.6	2.6	1.2	3.2
	10 월 누계	-33.2	-2.8	37.5	-2.2	14.8	22.1	-2.2	4.4	0.6
	14 년 누계	301.2	766.3	-91.2	-10.8	159.0	-260.9	-82.6	-33.6	142.5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6) : 11월 4일 중간선거

2014년 Target KOSPI	2,070pt
12MF PER	9.86배
12MF PBR	0.95배
Yield Gap	7.9%P

- ▶ 9월 미국 실업률 5.9%까지 하락 : 달러 강세 심화, 금값 1,200달러
- ▶ 반전의 계기는 어디에서부터 : 11월 4일 중간선거, 상원도 공화당에게 넘어가나
- ▶ 투자전략 : 달러 약세 반전을 확인해야, 10월 중 Bottom-fishing 기회

■ 연휴 기간 시장 요약 : 심화되는 달러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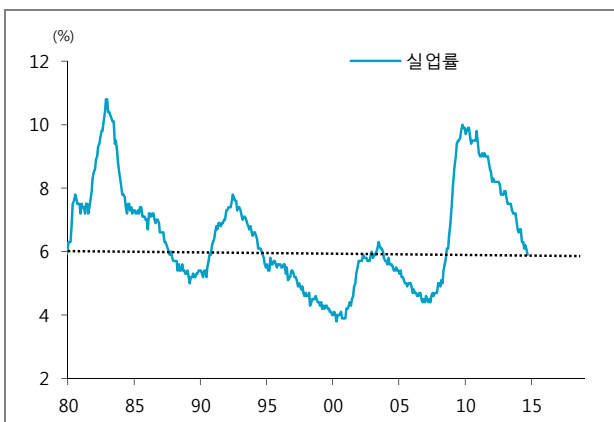
9월 미국 실업률 5.9%
: 달러 강세 심화

연휴 기간 달러 강세는 더욱 극심해졌다. 9월 미국 실업률이 5.9%를 기록, 통화정책 정상화의 경계선이라 여겨졌던 6%를 하회한 것이 결정타였다. 미국 시장은 큰 폭 상승 마감했지만 아직 안심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 1) KOSPI 200 야간 선물 지난 주말보다 0.24% 하락 : 1,970선 중반 개장 예상
- 2) NDF 시장 원/달러 환율 1,062.1원 호가 : 지난 주보다 1원 정도 상승
- 3) 주요 상품가격 지지선 이탈 : 금값 1,200달러, 원유(WTI) 90달러선 붕괴
- 4) 달러 인덱스 4년래 최고치 돌파 : 러시아 루블, 브라질 헤알 환율 직전 고점 넘겨
- 5) 미국 채권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4년래 최저 : 경기회복 기대감 크게 후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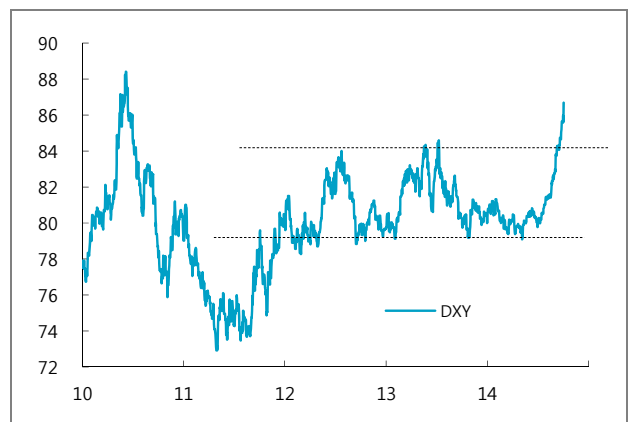
2일(목)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지만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ABS와 커버드본드 매입에 대한 시행안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매입 규모를 밝히지 않은데다 ECB 자산규모를 3조 유로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한 것이 실망 매물을 불렀다. 3조 유로면 2차 LTRO가 시행됐던 직후 수준에 불과해, 바주카포를 기대했던 시장 예상치에 한참 못미치는 레벨이다. 일각에서는 매입 규모를 밝히지 못한 것이 정책위원간 합의 도출에 실패했기 때문 아니겠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1] 미국 실업률 5.9%로 하락



자료: Bloomberg

[그림 2] 달러 인덱스 4년래 최고치



자료: Bloomberg

[그림 3] 금값 1,200달러선 이탈



자료: Bloomberg

[그림 4] 유가(WTI) 90달러선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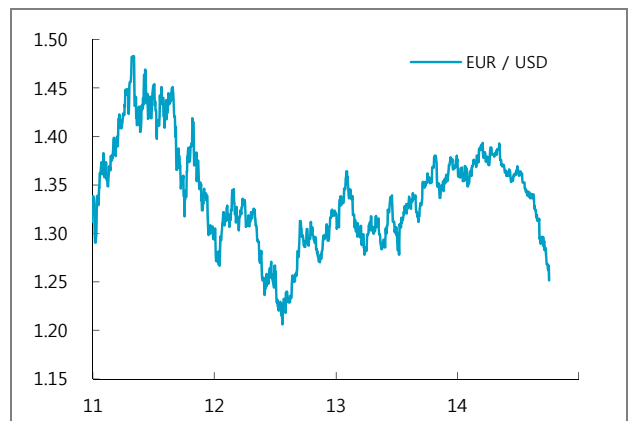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5] 루블화 약세 : 사상 최저치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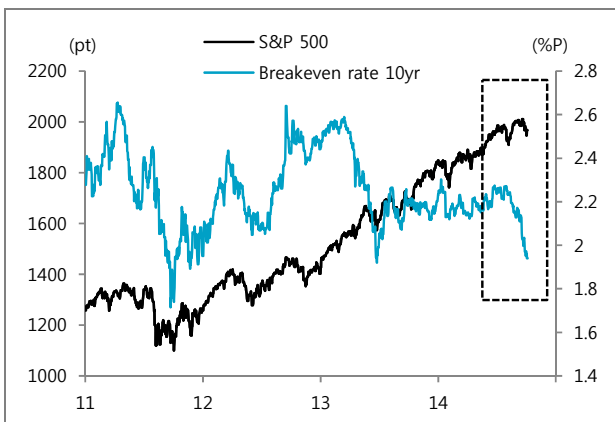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6] 유로화 약세 : 2년래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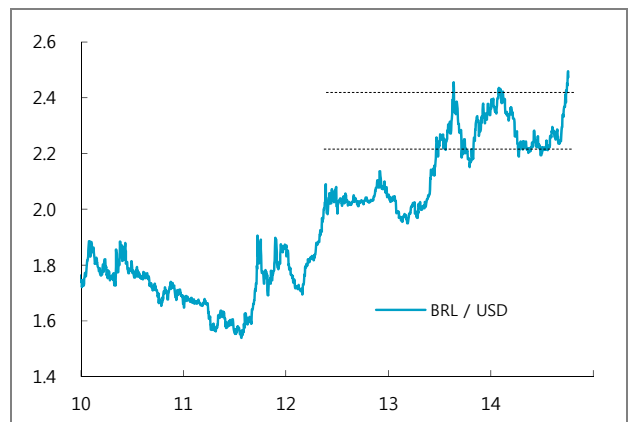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그림 7]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 급락 : 경기 기대감 후퇴



자료: Bloomberg

[그림 8] 브라질 헤알 작년 고점 돌파



자료: Bloomberg

11월 4일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 이유

■ 반전의 계기는 어디에서부터 : 11월 4일 중간선거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도 전에 고양이가 하품을 하면서 깨어나기 일보 직전 상황이 되었다. 결국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으려면 고양이를 다시 잠재우고, 달러가 약세로 반전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11월 중간선거(off-year election)가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표 1> 10월 중 주목해야 할 미국 통화정책 관련 일정

일시	주요 이벤트
10월 8일(수)	9월 FOMC 의사록 발표
10월 17일(금)	자넷 옐런 FRB 의장 보스턴 연은 컨퍼런스 연설
10월 29일(수)	FOMC 채권매입 종료 예정
11월 4일(화)	미국 중간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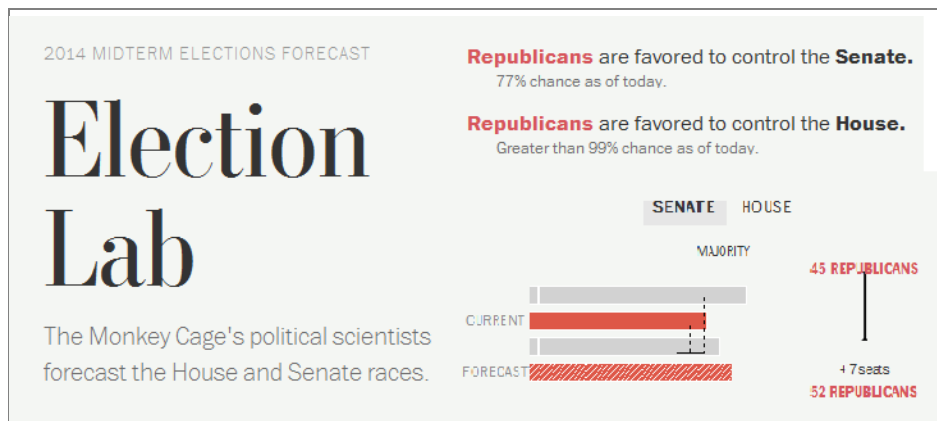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1) FOMC 바로 다음 주인 11월 4일(화) 미국은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2) 이번 선거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에 늘 비판적이었던 공화당이 우세하다는 관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연준이 정치 중립성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한 결정을 할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차기 대선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 금융 시장에 큰 폭의 변동성을 야기해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연준이 절대 원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2010년 2차 양적완화(중간선거), 2012년 3차 양적완화(오바마 재선) 모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다.

현재 미국 의회는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데 공화당이 6석만 더 차지하면 상원까지 장악할 수 있다.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들이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모두를 가져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Election Lab은 현재 공화당의 상원 장악 확률을 77%, 하원 장악 확률을 99%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9] 워싱턴 포스트 : 공화당의 상원 장악 확률 77%, 하원 장악 확률 99%로 예측



자료: <http://www.washingtonpost.com/wp-dre/politics/election-lab-2014>

금융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까지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유할 경우 1) 오바마 대통령이 급격한 레임덕에 빠지고 2) 정치권이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리가 있다. 어쨌거나 오바마 정부와 월스트리트는 양적완화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6년째 허니문(honeymoon)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표 1>에서 정리한 것처럼, 10월 8일(수) 공개되는 9월 FOMC 의사록과 17일(금)에 예정된 자넷 옐런 FRB 의장의 보스턴 연은 컨퍼런스 연설이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이 될 것이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으려는 비둘기적 스탠스가 관찰될 경우 시장은 우호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11월 4일(화)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확인되어야 한다. 2016년 대선까지 남은 2년간, 오바마 행정부의 추진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러의 약세 반전 여부다. 지난 주말에는 금 값이 기술적으로 중요 지지선인 1,200달러를 하회했는데 피보나치 되돌림의 다음 하락 목표치는 1,080달러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그림 10] 금값 1,200달러 붕괴



자료: Bloomberg

〈표〉 이번 주 주요 일정

6(월)	7(화)	8(수)	9(목)	10(금)
독일> 8월 공장수주 MoM (n/a, n/a, 4.6%)	日> 일본중앙은행 본원통화목표 (n/a, 270조엔, 270조엔) 8월 예비 선행지수 (n/a, n/a, 105.4) 독일> 8월 산업생산 SA MoM (n/a, n/a, 1.9%) 美> George 연준이사 연설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Dudley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美 연	日> 9월 경기관찰조사 현행 (n/a, n/a, 47.4) 8월 경상수지 (엔) (n/a, 2333억, 4167억) 美> 9월 FOMC 의사록 공개 버냉키 전 연준의장 연설 실적발표> 美 코스트코, 몬산토, 알코아	日> 8월 기계수주 MoM (n/a, 0.6%, 3.5%) 美> Bullard 연준이사 연설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드라기 ECB총재 연설 G20 재무장관 회담 실적발표> 美 펩시코	中> 9월 신규 위안 대출 (n/a, 7500억, 7025억) 美> Plosser 연준이사 연설 9월 재정수지 (달러) (n/a, 720억, 751억) 세계은행/IMF 연례 총회

정리: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1 : 전주 동향 및 기업실적 추정치 변경

KOSPI 전주대비 2.85% 하락. 미국 금리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지정학적 불안 등으로 달러 강세 강화되며 3개월만에 2,000pt 하회. 섬유·의복(+2.52%), 통신업(+1.64%), 전기가스(+0.88%) 등 방어적 업종만 선전. 건설(-7.45%), 기계(-6.70%) 등은 약세.

1일부터 시작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유우커 유입으로 인한 매출 증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코스맥스(+8.33%), 한국콜마(+7.46%), 쿠쿠전자(+6.47%), 호텔신라(+2.51%) 등 유우커 관련 주 강세. 반면, 달러 강세, 부진한 중국 경기 성장 등으로 조선, 기계 업종의 주요 종목들은 일제히 52주 신저가 기록. 한편 국고채 금리는 한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지속되며 국고 10년물 기준으로 2.80%선까지 하락한 후 소폭 반등. 달러 강세 현상 심화로 원/달러 환율은 1,060원선 돌파, 1,061.5원에 마감.

지난 주는 유틸리티(한국전력), 운송(한진, 아시아나, 현대글로벌비스), 의류(LF) 등의 실적 추정치 향상이 두드러짐. 반면 소프트웨어(조이스티, 게임빌), 하드웨어(네페스, 이녹스, 솔브레인), 보험(LIG손해보험), 미디어(스카이라이프, CJ CGV) 등은 EPS 일제 하향.

〈표〉 업종별 주간 EPS 변화를 및 등락률 변화

Name	수익률 (%)			12MF EPS CHANGE (%)			12MF Valuation (X)	
	1W	1M	YTD	1W	1M		PER	PBR
에너지	-8.44	-9.37	-31.52	2.14	0.34		10.24	0.60
소재	-7.15	-7.13	-11.04	1.21	-0.74		11.51	0.77
화학	-8.74	-8.24	-20.44	0.44	-1.52		11.70	1.01
금속 및 광물	-6.21	-6.59	-3.90	1.77	-0.79		11.37	0.66
산업재	-5.43	-5.40	-7.62	3.89	3.33		14.62	0.97
자본재	-6.02	-6.68	-11.58	4.10	3.19		12.97	0.84
건설	-6.74	-7.55	8.43	0.99	1.24		12.95	0.93
조선	-9.94	-15.17	-46.07	17.41	11.24		18.63	0.60
상업서비스	-3.93	-1.06	2.10	2.26	0.13		19.46	2.04
운송	-2.42	0.99	22.69	2.91	6.28		25.80	1.76
경기소비재	-3.03	-9.97	-7.60	0.49	0.36		8.26	1.02
자동차/부품	-3.43	-13.77	-14.28	0.35	0.27		6.35	0.87
내구소비재/의류	0.28	3.37	40.50	1.90	2.44		18.35	2.69
소비자 서비스	-0.71	-2.57	25.34	1.65	1.20		18.49	2.56
미디어	-3.74	-6.27	-8.27	-0.05	0.13		17.13	1.75
유통	-5.11	-7.45	-16.68	0.62	-0.13		11.25	0.80
필수소비재	-0.52	1.01	34.28	1.49	1.26		22.00	2.25
음식료/담배	-3.02	-0.45	22.50	1.56	1.39		17.86	1.63
생활용품	4.22	3.70	62.08	1.31	0.95		31.97	4.51
의료	0.56	7.59	18.19	1.67	3.99		19.71	2.40
제약/바이오	0.57	8.01	16.45	0.97	-0.19		19.94	2.29
금융	-4.50	-5.83	0.63	0.22	0.25		10.99	0.73
은행	-5.75	-8.23	-3.77	0.15	0.03		9.01	0.61
기타금융	-3.19	2.17	24.60	0.00	0.00		18.42	
증권	-1.21	-1.69	1.48	-0.09	-0.11		13.08	0.99
보험	-6.15	-3.84	20.39	1.73	2.96		16.00	0.79
IT	-1.34	-2.79	-7.34	-3.45	-10.57		10.78	1.25
소프트웨어	-0.94	5.21	14.25	-8.30	-6.10		27.63	4.60
하드웨어	-1.88	-5.46	-17.58	-5.21	-14.79		9.53	1.03
반도체	4.81	5.96	27.03	1.69	1.83		9.13	1.72
디스플레이	-7.25	-10.38	-1.75	2.47	4.47		10.51	0.95
통신서비스	1.51	4.89	20.30	5.85	6.87		13.89	1.12
유틸리티	1.27	11.72	28.28	13.86	66.28		6.84	0.58

주 : MKF500 업종 분류 기준, 전주 목요일 종가 기준 업데이트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2 : 주간 글로벌 업종별 등락을 상위/하위

지난 주 Bloomberg World Index 69개 업종 중 대부분이 2주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헬스케어 제품(+0.59%), 가정용품(+0.51%), 석탄(+0.46%) 등은 소폭이나마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철강(-4.95%), 석유&가스 서비스(-4.92%), 트럭/리스(-4.89%), 광산(-4.08%) 등 시클리컬 업종들은 이번 주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지난 주는 철강, 석유 등 원자재 관련된 업종의 낙폭이 특히 거셌다. 달러 인덱스가 4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금, 석유 등 주요 원자재가 기존 지지선을 하향돌파했기 때문이다. 슬립버거(-5.4%)와 엑손모빌(-1.62%) 등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으로 러시아에서의 일부 철수를 결정하면서 하락했다.

철강 업종은 지속되는 업황 부진으로 인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역시 하락 요인이었다. 지난 주 S&P는 1 아르셀로미탈(-7.2%)의 신용등급을 'BB+' 부정적'으로 한 단계 낮추었고, 포스코(-6.7%) 역시 'AAA'에서 'AA+'로 한 등급 강등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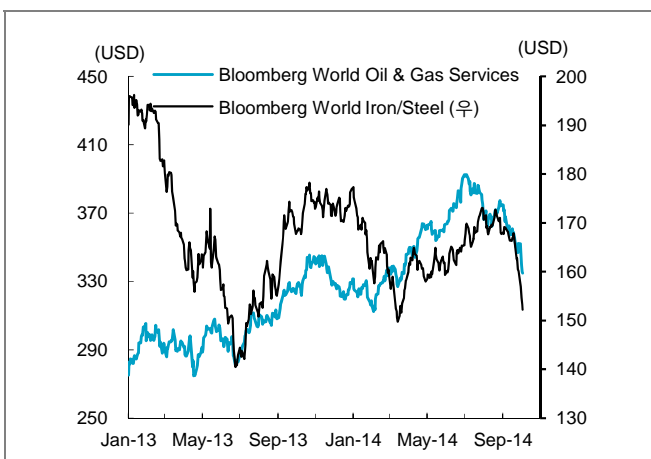
특이하게 석탄 업종 지수만 나홀로 소폭 상승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10월 중 실시되는 후강통을 앞둔 시장의 기대감 때문이다. 블룸버그 석탄 업종 지수에서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한 기업은 중국 선화 에너지로 중국 상해지수와 홍콩H지수에 동시 상장되어 있다. 그동안 비교적 홍콩과 상해 시장에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던 선화에너지는 지난 주 홍콩에서는 2.45% 하락한 반면, 상해에서는 2.98% 상승했다.

〈표〉 Bloomberg World Index 업종별 전주대비 수익률 상승/하락 상위

상승 상위	수익률 (%)	하락 상위	수익률 (%)
바이오	-0.16	항공	-5.06
섬유/소재	-0.23	파이프라인	-4.47
조선	-0.53	식품서비스	-4.21
복합기계	-0.56	트럭/리스	-3.94
엔터테인먼트	-0.58	철강	-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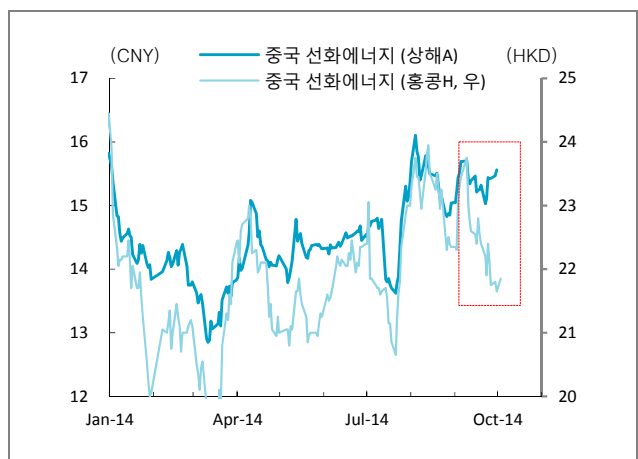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블룸버그 월드 철강, 석유 서비스 지수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중국 선화 에너지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Appendix 3 : 주간 글로벌 주식형, 채권형 펀드 유출입

주식형 펀드의 경우 선진국(International, Pacific)은 29.6억 달러가 유입됐고, 신흥국 (Asia ex-Japan, GEM)은 소폭 순유입 전환. 한국 펀드군으로는 2주 연속 순유입 기조 유지. 채권형의 경우 미국/글로벌 채권형 펀드는 순유입세가 유지됐으나 신흥국 채권펀드는 순유출세로 돌아섰고, 하이일드 채권 펀드에서의 자금유출 폭은 확대되는 등 위험자산 회피심리 여전.

〈표〉 글로벌 주식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	자산규모	한국비중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4년
선진국 투자펀드	International	1,912,624	1.6%	2,965.5	10,440	69,184
	Pacific	47,547	6.6%	38.1	122	-1,842
신흥국 투자펀드	Asia ex-Japan	347,073	16.2%	154.4	1,700	123
	Global Emerging	476,456	11.2%	-58.6	-305	4,865
	Latin America	35,655	-	-93.2	346	-3,873
	Europe/Middle East/Africa	899,000	-	90.8	112	-3,044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표〉 글로벌 채권형 펀드 유출입

(단위: 백만달러)

구분	지역별/시장별	자산규모	자금유출입		
			최근 1주	최근 4주	2014
전체 채권 펀드 (미국+신흥국+인터내셔널+하이일드)		3,294,261	9,058	9,586	143,878
신흥국 채권 펀드 (EM bond totals)		255,537	-392	98	406
	- EM 경화(\$) 채권	108,119	-128	54	1,726
	- EM 신흥국 통화 채권	103,022	-426	-599	-6,869
	- EM Blend 통화 채권	44,397	162	643	5,548
인터내셔널 채권 펀드		1,083,346	2,463	4,736	63,802
하이일드형 채권 펀드		459,516	-3,686	-9,026	-5,427
미국 채권 펀드 (US bond totals)		1,495,862	10,672	13,779	85,098
	- Municipal	353,128	374	1,655	7,900
	- Floating Rate	113,641	-1,198	-2,706	-4,969
	- Inflation Protected	50,744	-261	-729	-829
	- Inter. Term Corp.	21,056	29	246	3,591
	- Inter. Term Funds	341,648	4,806	6,390	18,271
	- Inter. Term Gov.	25,022	83	-611	125
	- LT Bond	5,898	19	31	446
	- LT Corp.	28,108	17	-219	3,088
	- LT Gov.	12,443	285	-2,690	3,197
	- MBS	70,457	1,600	2,051	3,577
	- ST Bond	204,666	1,121	2,170	17,381
	- ST Corp.	31,112	140	438	2,998
	- ST Gov.	37,712	1,595	2,185	1,163
	- Total Return	200,228	2,063	5,568	29,159
기타 채권 펀드 (Other bond totals)		4,351,923	-1,022	21,547	-7,807
	- MMF 채권펀드	3,595,149	-2,962	13,968	-50,486
	- Balanced Funds	756,774	1,940	7,579	42,679

자료: EPFR, 한국투자증권

달러 강세 및 정치 불안감에 인니증시 급락

- ▶ 상해종합지수는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7일 휴장, 8일 개장 예정
- ▶ 홍콩H지수는 국경절, 중앙절 연휴로 10월 1일~2일 휴장, 3일 개장 예정
- ▶ 자카르타종합지수는 달러 강세, 정치불안감, 해외자금 유출 우려로 2.7% 급락
- ▶ VN지수는 지표개선, 경기회복 기대, 외국인의 순매수로 0.6% 상승

■ 중국 시장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7일 휴장, 8일 개장 예정

국경절 연휴로 10월 1일~7일 휴장, 8일 개장 예정

■ 홍콩 시장

국경절, 중앙절로 1일~2일 휴장, 3일 개장 예정

국경절, 중앙절 연휴로 10월 1일~2일 휴장, 3일부터 개장 예정

■ 인도네시아 시장

자카르타종합지수 2.7% 급락, 은행, 유틸리티, 헬스케어, 산업재 등 약세

자카르타종합지수는 2.7% 급락하며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폭의 하락세로 출발한 후 장중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폭이 연속 확대됐다. 해외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 지속, 무역수지 적자 전환, 최근 루피아화 가치 하락, 정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악재로 작용했다. 대다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은행주가 큰 폭으로 내렸다.

■ 베트남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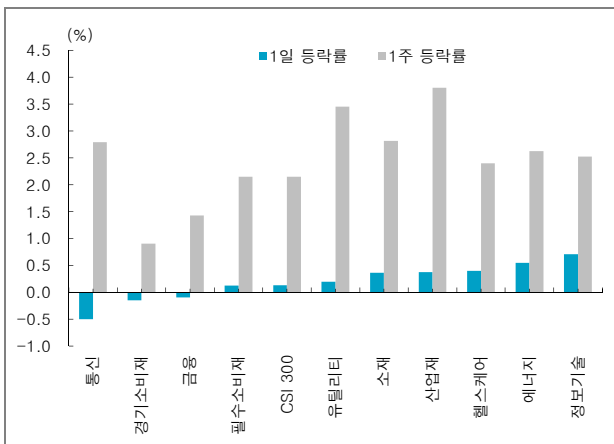
VN지수는 0.6% 추가로 상승하며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다. 제조업 지표 개선, 경기 회복 기대, 외국인의 순매수세 유지, 은행권 부실대출에 대한 총리의 엄격한 처리 요청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금융, 통신, 유제품 생산, 운송 등 대부분 업종이 상승했다. 반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시가총액 1위 업체 GAS는 반락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뉴스

시장 구분	주요 내용
중국	국무원, 정부 부채규모 지표를 공무원들의 실적평가 지표로 사용 국무원, 지방정부의 채무 불이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제 안할 것 국무원, 지방정부는 불법적인 토지 양도 및 용자활동을 철저히 단속할 것
인도네시아	8월 무역수지 -3.18억달러 (7월 0.42억달러)
인도네시아	8월 소비자물가지수 4.04% (7월 4.47%)
태국	9월 소비자대지수 79.2 (8월 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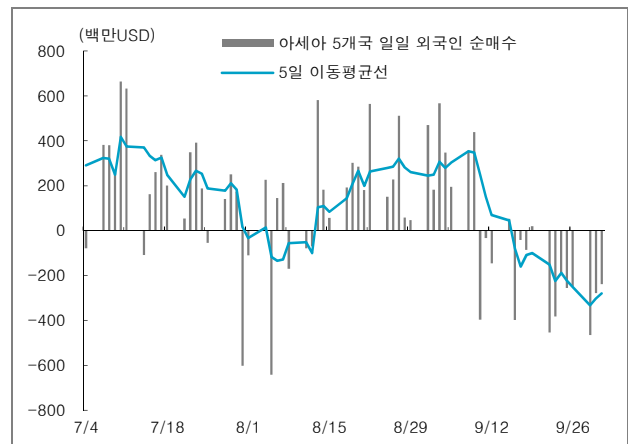
◆ 주요 이머징마켓 차트

[그림 1] 중국 CSI300 업종별 등락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아세아 5개국* 외국인 순매수 규모 추이



주: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5개국의 달러자금 흐름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0/1(수)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363.87	휴장	2.34	0.00	11.72
홍콩 H	10,310.40	휴장	-2.44	0.00	-4.68
중국 차스닥	1,540.88	휴장	2.66	0.00	18.12
인도 SENSEX	26,609.05	휴장	-0.51	-0.08	25.69
인도네시아 JCI	5,000.81	-2.73	-3.86	-2.66	17.00
태국 SET	1,566.04	-1.34	-1.63	-1.24	20.58
베트남 VN	612.66	0.56	1.25	2.31	21.41
MSCI 이머징마켓	996.86	-0.84	-2.81	-0.84	-0.58

주: 2일 오후 6시 3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외국인의 시장별 매매가 엇갈리며 혼조세로 마감

- 미국증시는 지속되는 홍콩 민주화 시위 및 경제지표 부진 등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감에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1,990P 선을 밀돌며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하락을 주도하며 장중 1,970P선 마저 무너지는 약세를 보였으나 낙폭을 다소 줄이며 1,976P로 마감. 대외 악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실적 부진 우려감에 대표적인 수출주인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나란히 신저가를 기록하며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 반면 하락 출발한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 570P선에 바짝 다가서며 마감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정부가 미술품 거래 활성화를 위해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6,3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소식에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1위 기업인 서울옥션이 10% 이상 강세를 보였으며, 전방산업인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른 재평가 기대감에 바이오랜드가 신고가를 기록. 삼성전자의 밀크뮤직과 함께 스트리밍 시장 진출 기대감에 소리바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알리바바 자회사인 알리페이와의 사업 제휴 소식에 하이셀도 상한가를 기록. 또한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 기대감에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반면, 삼성동 한전 부지 매입 및 엔화 약세 기조 강화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감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3분기 영업이익 급감 전망에 OCI도 신저가를 기록

종목/테마	내 용
서울옥션(063170) ▶4,550(+12.35%)	미술 시장 성장 기대감에 초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미술품 경매 시장 1위 사업자로서 미술 시장 회복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초강세 -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미술 시장을 2018년까지 6,300억원 규모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은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 아울러, 중국 미술 시장 성장에 따른 홍콩 자회사의 수혜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
바이오랜드(052260) ▶26,550(+6.20%)	올해 실적 급증 전망에 신고가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들의 한국 화장품 소비 확산 등으로 국내 화장품 업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전방산업 호조에 따른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동사는 국내 1위 화장품 원료업체로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음
증권주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발표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준비중인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 SK증권(001510, +7.77%), 미래에셋증권(037620, +5.36%), 교보증권(030610, +4.74%), NH농협증권(016420, +4.34%), 삼성증권(016360, +3.59%), 대신증권(003540, +3.26%) 등 강세
전자결제 관련주	간편 결제서비스 확대 소식에 강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금융협회가 자기자본 400억원, 순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의 카드정보저장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강세 - KG이니시스(035600, 상한가), KG모빌리언스(046440, +9.95%), 한국사이버결제(060250, +8.98%), 다날(064260, +7.22%), SBI액시즈(950110, +2.18%) 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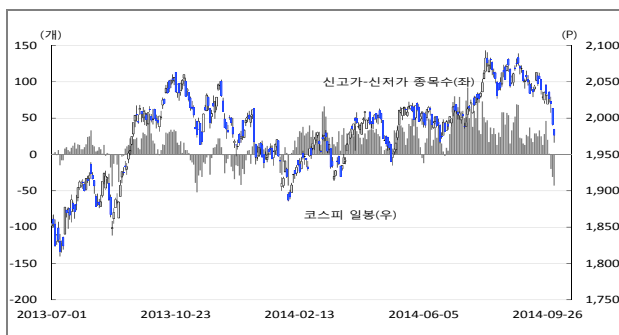
주간 국내외 증시 동향 및 52주 신고가 종목 현황

- 미국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정정 불안 및 6일째 이어진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17,000P선을 이탈하는 등 연일 약세를 보임
- 이에 따른 여파로 국내 증시도 한주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코스피가 1,970P선까지 추락, 반면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569P로 한주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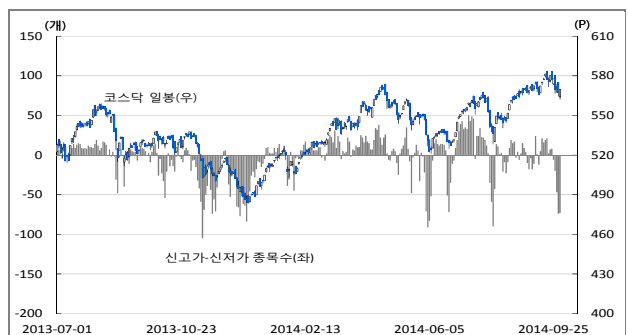
구분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섹터	업종	종목	주가(원)	등락률 (%)
유가증권	IT	전기전자	KEC	1,470	13.5	건강관리	화학	서흥	56,600	6.4
	IT	서비스업	신세계 I&C	117,500	6.3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신원	2,955	23.9
	IT	전기전자	경인전자	21,700	6.6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영원무역홀딩스	108,000	9.1
	IT	전기전자	신도리코	75,900	2.3	경기소비재	미분류	삼익악기	4,375	7.5
	소재	유통업	고려포리머	1,060	19.1	경기소비재	운수장비	덕양산업	47,900	6.9
	금융	서비스업	NICE	17,250	17.3	경기소비재	섬유의복	한세실업	39,450	8.8
	산업재	운수창고	CJ대한통운	174,500	5.1	경기소비재	유통업	신세계인터내셔널	141,500	11.0
	산업재	운수창고	한진	44,100	3.2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국콜마홀딩스	39,050	4.4
	유틸리티	유통업	SK가스	151,500	14.8	경기소비재	서비스업	한세예스24홀딩스	12,450	12.7
	유틸리티	전기가스	한국전력	48,550	3.0	경기소비재	유통업	엠케이트랜드	16,800	2.4
	건강관리	의약품	환인제약	22,700	14.9	필수소비재	서비스업	풀무원	150,000	16.3
	건강관리	의약품	오리엔트바이오	714	19.6	필수소비재	음식료	MH에탄올	10,700	18.4
	건강관리	의약품	대원제약	15,100	14.0	필수소비재	음식료	삼립식품	142,000	2.2
	건강관리	의약품	삼진제약	25,100	8.2					
코스닥	IT	소프트웨어	한국사이버결제	26,100	26.4	건강관리	제약	휴온스	56,200	6.2
	IT	정보기기	아이씨케이	4,700	8.0	건강관리	도매	팜스웰바이오	3,630	25.2
	IT	IT부품	KH바텍	30,300	4.8	경기소비재	출판매체복제	스포츠허울	1,655	13.4
	IT	디지털컨텐츠	드래곤플라이	12,750	34.4	경기소비재	전문기술	오리콤	3,665	14.9
	소재	환경	스틸앤리소시스	1,250	21.4	경기소비재	도매	서울옥션	4,550	19.7
	산업재	일반전기전자	에이치엘비	6,790	12.0	경기소비재	교육	디지털대성	4,300	5.8
	산업재	전문건설	금화피에스시	50,600	0.8	경기소비재	소매	아이에스이커머스	4,100	22.0
	건강관리	제약	메디톡스	239,200	11.1	경기소비재	도매	MPK	5,000	25.6
	건강관리	제약	셀루메드	4,090	8.2	경기소비재	화학	바이오랜드	26,550	6.6
	건강관리	연구개발	메지온	29,600	13.4	경기소비재	도매	코스온	15,600	13.9
	건강관리	의료정밀기기	바텍	25,750	8.0					

주) 상기 종목들은 10월 02일 장중 기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의 현황이며, 등락률은 주간 등락률입니다.

코스피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코스닥 일봉과 신고가-신저가 종목수 추이



단기 유망종목: 태광 외 5개 종목

- 신규:없음

- 제외: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태광 (023160)	15,350 (-2.2)	15,700 (0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2년 발생한 불량제품 보상 문제로 이후 2년간 수주, 생산에 차질을 빚었으나 설비증설 및 내부품질 감독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메인 벤더의 지위를 회복 중 2013년 하반기부터 국내 건설사들의 산업설비(정유/화학/발전 플랜트) 수주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향후 2년간의 수주 모멘텀 예상. 수주 모멘텀과 함께 제품 Mix 개선으로 2분기를 바닥으로 외형 성장세가 재개되는 가운데 수익성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풍산 (103140)	28,700 (-12.2)	32,700 (0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분기 연결 영업이익 64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00% 이상 증가 예상 구리가격의 안정화, 환율 안정, 해외법인 실적 개선 등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산부문의 장기 성장성, 동래공장 개발 가능성 등으로 자산가치 재조명 가능성
현대백화점 (069960)	149,000 (-8.0)	162,000 (09/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수 부양책, 소비심리 개선, 객단가 상승, 이연소비 등을 감안할 때 3분기 들어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기존점 매출액 증가율은 4분기에도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2015년과 2016년 사이 총 6개의 신규 개점으로 인한 실질 영업면적 증가율은 2015년과 2016년 각각 14.3%, 28.5%에 달해 향후 2년간 고성장세 예상 하반기 내수 부양책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여타 유통주 대비 높은 성장 잠재력,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평화정공 (043370)	20,750 (-4.2)	21,540 (08/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장관련 신제품들(Active hood, 자동단김장치, Power trunk)에 대한 채택 차종 증가와 고객 베이스 확대에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예상 인도와 중국에 증설 중인 공장이 각각 3분기와 4분기에 완공되면 현재 20% 수준인 현대/기아차 외 매출비중이 2년 내 30%까지 확대될 전망
삼영이앤씨 (065570)	9,190 (-0.2)	9,210 (0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해안전과 직결된 선박전자장비 전문업체로 국내 유일의 상장업체로, 대형 선박에만 적용됐던 법령규제 장벽이 중소형 선박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국내어선 감척으로 한동안 침체됐던 내수시장은 항해안전 관련 규제 강화, 마린나 활성화 등으로 회복/재성장할 수 있는 여건 형성 중장기적으로 e-내비게이션 도입, 기존장비의 디지털화에 따른 수혜 예상
에스원 (012750)	80,500 (+10.7)	72,700 (07/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관리사업 양수와 시스템경비 가입자수 증가, 보안상품 판매 성장으로 향후 3년간 매출액과 순이익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4%, 28% 예상 주력 사업부인 보안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ESCO(Energy Service Company), 헬스케어 등 다양한 신규사업의 확장성을 주목할 필요 삼성 에버랜드로부터의 건물사업 양수를 통한 외형 확대와 건물 에너지 관리(Building Energy ManagementSystem: BEMS)사업과의 시너지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무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LG생활건강 외 5개 종목

- 신규:없음

- 제외: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4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LG생활건강 (051900)	506,000 (+1.2)	500,000 (08/13)	4,639	517	363	21,759	23.3
			-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매출호조와 방문판매 매출증가로 화장품 부문의 2분기 실적은 개선세로 전환, 장기적인 이익 개선 시그널 확인				
			- 2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음료사업은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며 점진적인 실적 개선 예상				
			- 실적 부진, M&A 기대감 약화 등과 관련한 주가 선반영 과정은 일단락, 내수 회복 기대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화장품 면세채널과 중국사업 정상화, 생활용품과 음료부문의 경쟁완화 등에 따른 하반기 수익성 개선을 주목할 필요				
제일기획 (030000)	21,500 (-1.8)	21,900 (06/26)	3,228	162	126	1,096	19.6
			- 국내 광고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 지속 예상				
			- 중국 광고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 삼성전자의 신중국 마케팅 확대, M&A를 통한 광고 대행 능력 강화, 비계열사 광고주 확대 등을 감안할 때 성장성 대비 저평가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NAVER (035420)	792,000 (+0.6)	787,000 (06/23)	2,725	791	575	19,289	41.1
			- 라인 가입자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익 모델다변화로 라인 매출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모바일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서비스와 수익모델 도입이 가능하고 유행에 덜 민감한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 라인은 여타 글로벌 SNS업체들 대비 상대적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폐쇄형 SNS인 밴드(BAND)도 글로벌 가입자 증가와 모바일 게임 출시로 성장 기대				
삼성SDI (006400)	121,000 (-20.7)	152,500 (03/14)	5,038	136	310	6,896	17.5
			- BMW의 신제품 출시 및 Global 자동차 업체들의 전기차 경쟁 등을 감안할 때 자동차용 2차전지 부문의 고성장 기대 유효				
			- 소형 전지는 Mobile 신제품 출시 및 Tablet PC 출하량 증가에 따른 제품믹스 조정으로 수익성 개선 예상				
			- 2차전지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PBR 0.9배) 재부각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141,000 (-12.3)	1,301,050 (02/17)	209,159	29,766	25,187	166,768	6.8
			- 성장세 둔화와 함께 업체간 경쟁 격화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 마케팅 능력 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문의 안정적인 실적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				
			-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할 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7				
SK텔레콤 (017670)	298,500 (+31.2)	227,500 (01/15)	17,632	1,904	1,731	24,401	12.2
			-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증가하는 가운데 설비투자과 마케팅비용은 감소로 수익성 호전 추세 지속				
			- 무제한 데이터 가입자, 특화 요금제 가입자 증가로 2014년에도 ARPU 증가 예상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 설비투자 감소로 인한 가용현금흐름(free cash flow)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주주이익 환원 정책 강화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텔레콤, 삼성전자, 삼성SDI, NAVER, LG생활건강의 발행주식유통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계절성과 사이클은 구별해서 보자

■ 언제나 존재하는 계절적 비수기와 사이클의 방향과는 상관이 없다

4분기말부터 시작되는 비수기 시즌을 앞두고 벌써부터 우려감이 높다. 비수기는 말 그대로 계절적으로 매해 나타나는 수요 약세기간을 의미한다. 경기가 좋건 좋지 않건 디스플레이 사이클이 상승하건 하락하건 상관없이 매해 같은 시기에 나타나는 수요패턴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절성을 중심에 두고 업황을 전망하고 투자전략을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 분명 계절성은 투자전략에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지만 계절성이 사이클의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이번에도 4분기말부터 2015년 1분기 중반까지의 비수기는 존재할 것이다. 다만, 그 비수기가 평균 대비 약할 지 강할 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투자전략은 달라져야 한다. 이번 비수기는 약하고 짧은 전망이다.

■ TV업체의 계절적 재고변화는 상고하저를 반복

TV업체들의 LCD패널구매 패턴을 보면 상반기에는 재고를 늘리고 하반기에는 재고를 소진하는 모습을 반복한다. [그림 1]을 보면 TV산업 전체의 재고가 상고하저의 패턴을 매해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매해 4분기는 TV업체들의 재고조정 기간으로 TV완제품 출하량 대비 패널구매량의 비중이 1년 중 가장 낮아지는 시기이다. 따라서, 4분기의 패널구매 패턴만을 보고 업황의 강약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면 2012년 4분기에도 완제품 출하량 대비 패널출하량의 비율은 연간 가장 낮은 99%였다. 하지만, 주가는 고점을 찍었고, 2013년 상반기 그 비율은 다시 128%까지 높아졌지만 주가는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았다. 2007년 4분기에도 주가가 고점을 찍었고 2008년 상반기부터는 조정을 나타냈다. 계절성과 주가의 방향성 간의 상관관계는 그리 높지 않다.

■ 현재 재고수준은 부담스럽지 않다

우리가 보고 있는 LCD산업의 재고수준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다. [그림 2]을 보면 직전사이클에서 LG디스플레이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2012년 4분기의 재고수준과 현재의 재고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V만 따로 보더라도 2014년 상반기 재고가 증가했지만, 아직 재고가 고점에 다다르려면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TV산업의 재고고점은 매 사이클을 지나올 때마다 소폭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이클의 고점까지는 더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아직 패널수급을 불안하게 볼 요인은 많지 않다.

■ LG디스플레이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44,000원 유지

최근 계절적 비수기 영향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조정 받은 LG디스플레이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4,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2015년 추정BPS에 PBR 1.2배를 적용했다. 2014년말부터 2015년초 비수기는 있겠지만, 패널수급은 크게 악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조정으로 주가는 현재 2014년 기준 PBR 1.0배 수준까지 하락해 상승여력은 더 커졌다. 이익증가에 의한 ROE와 밸류에이션 상승을 기대해도 좋은 시점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동차: 3대 악재 소멸로 주가 반등할 시점

■ 3대 악재 소멸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가 파업 지속, 원화 강세, 한전부지 고가 매입의 3대 악재가 소멸되고 있어 반등할 전망이다. 현대의 올해 잠정 임금협상안이 찬반 투표에서 2일 가결됐다. 원/달러도 지난 6개월래 처음으로 1,060원을 돌파하며 올라가고 있다. 게다가 한전부지 매입에 따른 후폭풍도 현대와 기아가 시장과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진정될 것으로 판단한다. 현대와 기아의 9월 판매는 국내공장의 부분파업에도 불구하고 강세기조를 재개했다. 9월 양사 합산 판매는 621,650대로 전년동월대비 11.2% 증가했다. 현대와 기아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 250,000원(12MF PER 8배 적용, 역사적 평균치 10% 할인)과 68,000원(12MF PER 7배, 업종 평균 PER 20% 할인)을 유지한다.

■ 기아 고성장세 이어가

현대의 9월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한 389,748대를 기록했다. 내수판매는 47,789대로 3.3% 증가했고 해외 판매도 7.2% 증가(수출 70,930대, +2.7%, 해외공장판매 271,029대, +8.4%)했다. 기아의 판매는 신모델 효과 강화로 19.7%나 증가했다. 내수판매는 20.2% 증가한 38,605대이고 해외판매는 19.6% 증가했다(수출 77,010대, +32.6%, 해외공장판매 116,287대, +12.3%). 9월 Sorento 내수판매는 6,908대(신형 Sorento 6,353대 포함)로 전년동월 2,664대에서 급증했다.

■ 9월 미국판매: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9월 양사의 미국판매는 96,638대로 3.8% 증가했다. 산업수요는 9.4% 증가한 125만대를 기록했다. 9월 연환산 판매는 1,640만대이다. 이에 따라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7.8%로 전년동월 8.2% 대비 하락했다. 현대는 1.6% 증가한 56,010대, 기아는 6.9% 늘어난 40,628대를 판매했다. 미국판매 회복은 PS Soul과 LF Sonata의 신모델 효과에 기인한다. 기아의 점유율은 3.3%로 전년동월과 같았고 현대는 4.8%에서 4.5%로 하락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만도(204320)

매수(신규)

목표가: 270,000원

종가(8/27): 137,000원

반가운 홀로서기

■ 목표주가 270,000원 제시

인적분할돼 10월 6일 재상장되는 사업회사 만도(204320, 신설회사)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27만원을 제시한다(12MF EPS에 목표 PER 12배 적용, mid-cycle PER 13배에서 할인). 지주회사 한라홀딩스(060980, 존속회사)는 5만원 아래로 급락할 경우 저평가 매력이 있다(NAV 30% 할인 시 50,700원). 한편 분할 후에는 만도의 배당 성향이 증가해 배당수익률이 2014년 0.9%에서 2016년에 2.4%로 상승할 전망이다.

■ 지배구조 우려 해소를 위해선 행동이 필요한 시점

여전히 시장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이 지배구조 개선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지배구조 개편이 결국 만도의 현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는 계기는 지주회사의 사업회사 지분매입이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시장에서 우려하는 시나리오인 한라건설과 한라홀딩스의 합병 가능성이 사라지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지주와 사업회사 주가가 본격 상승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 장기 성장성을 뒷받침하는 수주 증가

상반기에만 5조원의 수주를 확보하면서 당초 연간 수주 목표인 8.5조원을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연말 수주 잔고는 32조원으로 예상된다(2012/2013년, 24/29조원). 수주 후 최소 3년 이내에 매출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시 지난 3년간 늘어난 8조원의 수주잔고는 향후 매출 성장의 밑거름이다. 특히 유럽지역에서의 대형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는 기본제품 위주지만 점차 전장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5,059	256	163	9,065	(26.6)	425	14.2	7.4	1.5	11.4	0.8
2013A	5,634	313	178	9,999	10.3	513	12.5	6.4	1.3	11.3	1.0
2014F	4,868	322	199	11,163	11.6	498	12.3	7.2	2.5	15.0	0.9
2015F	5,253	363	218	12,244	9.7	516	11.2	6.7	2.1	20.1	0.9
2016F	5,802	393	241	13,515	10.4	558	10.1	6.0	1.8	18.6	0.9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메리츠화재(000060)

매수(유지)

목표가: 15,500원(하향)

종가(10/1): 13,000원

메리츠금융지주 대상 유상증자로 자본확충

■ 메리츠금융지주 대상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실시

메리츠화재는 전일 메리츠금융지주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604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발행가는 전일 종가 대비 50원 높은 13,050원(0.4% 할증)으로 4,634,200주가 발행된다. 신주의 배당기산일은 2014년 1월 1일로 올해 연말 배당에 포함되며, 2014년 10월 27일에 상장될 예정이다.

■ 유상증자 목적은 메리츠금융지주의 보유 지분을 강화(47.72% → 50.01%)

증자 목적은 메리츠금융지주의 보유 지분율을 50%로 끌어올리는데 있다. 감독당국은 메리츠화재 인적 분할 당시 메리츠금융지주의 메리츠화재 보유지분을 50% 이상 유지하길 권고했다. 그러나 2013년 3월 메리츠화재가 GIC로 유상증자 555억원을 단행한 후 메리츠금융지주의 지분율은 50.01%에서 47.72%로 하락했다. 이번 604억원 증자로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의 지분율을 50.01% 확보하게 된다. 대주주 지분율 강화를 목적으로 단행한 소규모 유상증자이기에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

■ 시가 발행으로 dilution 제한적, 3년 평균 ROE 0.4%p 하락, '15년 EPS 3.3% 감소, '15년 BPS 0.1% 증가

시가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선택했기에 dilution 효과는 제한적이다. 유상증자 후 동사의 3년 평균 ROE는 기존 11.2%에서 10.8%로 0.4%p 하락할 전망이다. '15년 EPS는 3.3% 감소, '15년 BPS는 0.1% 증가한다. 반면, 유상증자 이후 동사의 RBC 비율은 약 9.3%p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RBC 비율이 219.9%로 여유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 RBC 규제 강화를 고려한다면 긍정적 요인이다.

■ 적정PBR 변경으로 목표주가 16,000원에서 15,500원으로 3.1% 하향 조정

ROE 하락으로 동사의 적정 PBR이 기존 1.15배에서 1.11배로 조정되고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기존 16,000원에서 15,5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①RBC 개선에 따른 자본비용 0.1%p 하락(10.1% → 10.0% 변경), ②자본확충이 반영된 4Q BPS 13,929원을 적용 시 목표주가 변경 폭은 3.1% 수준이다. 동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목표주가 변경 폭이 미미하기에 기존 투자의견 Buy를 유지한다

	경과보험료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수정EPS (원)	증감률 (%)	수정BPS (원)	수정PER (배)	수정PBR (배)	ROE (%)	DY (%)
2012A	4,500	182	131	1,352	(20.6)	11,238	8.8	1.1	13.2	2.5
2013A	3,528	193	135	1,335	(1.3)	10,365	11.3	1.5	17.0	2.1
2014F	5,787	190	124	1,167	(12.6)	12,868	11.1	1.0	10.4	2.1
2015F	7,017	221	147	1,391	19.2	14,300	9.3	0.9	10.3	2.5
2016F	7,641	266	182	1,719	23.6	14,968	7.6	0.9	11.8	3.1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모두투어(080160)

매수(유지)

목표가: 34,000원(유지)

종가(10/1): 22,000원

회복의 신호탄

■ 3분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2% 감소할 전망

3분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453억원 영업이익은 11.9% 감소한 78억원으로 예상된다. 모두투어의 3분기 해외 패키지 송출객수는 249,40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0.6% 증가했다. 7~8월 패키지 송출객수가 여행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3.7%, 1.7% 감소했음에도 여행 심리 회복 등으로 9월 수치가 8.7% 늘었기 때문이다. 일부 상품에 대한 할인 판매 등으로 ASP와 수익성은 당초 예상보다 낮을 전망이다. 모두투어는 4분기에 여행 박람회(10월 31일~11월 2일)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분기에 일부 광고비를 선집행했을 것으로 추정돼 광고비 증가가 예상된다.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64억원으로 예상돼 별도기준 실적을 하회할 전망이다. 인바운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모두투어인터내셔널(지분율 67.5%)의 대손충당금 반영이 금년 말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3분기에 약 10억원 반영을 예상한다. 대손충당금은 금년 상반기에 약 25억원을 인식했고 하반기에는 20억원으로 예상돼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이다.

■ 상승하는 예약률,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모두투어는 여행업종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약률의 10~12월 추세가 좋아 4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인다. 9월 해외 패키지 송출객수는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했고, 예약률(10월 11.7%, 11월 32.9%, 12월 49.8%)이 상승세다. 필리핀 태풍과 태국 반정부 시위 등의 영향으로 작년 4분기부터 동남아행 여행 수요가 부진했는데, 겨울 성수기를 맞이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상반기 위축됐던 여행심리가 회복되면서 이연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4분기 별도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4.1%, 48.2% 늘어날 것이다.

■ 4분기부터 실적 개선 본격화될 전망으로 매수 의견 유지

모두투어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주가 34,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18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소득 수준 증가와 레저/여가 문화 확대로 내국인의 해외 여행 활성화는 지속될 것이다. 부킹엔진, 모바일 앱 출시, 여행박람회 개최 등으로 개별여행상품 판매 확대가 예상돼 점유율 상승이 가능할 전망이다. 모두투어는 지역별 모객 및 매출 비중에서 동남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내외로 커,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행 수요가 정상세대로 돌아오면 송출객 및 실적 개선 속도는 더욱 빠를 전망이다. 금년 배당성향(별도기준)은 34.1%로 예상되며 주주친화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상향될 것이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138	21	18	1,437	29.7	23	20.9	12.6	4.0	22.7	1.5
2013A	147	16	16	1,335	(7.1)	17	17.2	11.4	2.8	18.7	2.2
2014F	164	16	16	1,360	1.9	17	16.2	9.7	2.4	17.4	2.5
2015F	181	27	23	1,892	39.1	29	11.6	5.4	2.2	21.4	3.0
2016F	198	32	27	2,207	16.6	34	10.0	4.3	1.9	21.7	3.5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SK브로드밴드(033630)

매수(유지)

목표가: 6,000원(상향)

종가(10/1): 4,630원

IPTV 성장으로 수익이 변곡점 맞는다

■ IPTV는 가입자 급증, 2015년 수익 흑자 전환 예상

SK브로드밴드는 결합판매율이 낮아 성장성이 높은 IPTV 사업자다. 2014년, 2015년 IPTV 가입자수는 전년 대비 각각 33.6%, 20.0% 증가할 전망이다. 주문형 비디오(VOD) 수요 증대, 가입자수 증가와 협상력 강화 등으로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 수수료 및 광고 단가가 인상돼 가입자당 매출액(ARPU)이 증가할 것이다. 향후 3년간 IPTV 매출액은 연평균 30.3% 증가할 전망이다. 2015년부터 IPTV는 매출 증가와 가입자당 프로그램 사용료 하락으로 흑자 전환될 전망이다. 가입자 증가에 따른 협상력 강화로 CATV의 46%인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 수수료가 오르고 CATV의 3배인 가입자당 프로그램 사용료는 내려 수익이 호전될 것이다.

■ 수익은 2015년에 턴어라운드, 2016년 급증 전망

IPTV와 기업사업(B2B)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향후 3년간 매출액은 연평균 5.8% 증가할 전망이다. 단통법 영향으로 SK텔레콤이 유무선 결합판매를 늘릴 전망이다. 2015년에 수익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다. IPTV 수익이 개선되는 데다 SKT와의 시너지, 설비투자 감소로 매출액 대비 마케팅비용 및 감가상각비가 하락하기 때문이다. 3년간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연평균 각각 29.4%, 109.6% 늘어날 것이다. Free cash flow가 플러스로 돌아서 차입금은 축소될 전망이다.

■ 주가는 장기 성장성, 수익 호전을 반영할 것

매수의견을 유지하며 목표주가를 4,900원에서 6,000원으로 상향한다. 2015년, 2016년 매출과 이익 추정치를 높였기 때문이다. EV/EBITDA, 가입자당 기업가치(EV)는 역사적 최저 수준이다. 주가는 장기 성장성, 수익 호전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본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2,492	82	22	76	16.9	556	61.4	4.7	1.2	1.8	-
2013A	2,539	73	12	42	(44.7)	540	104.2	4.7	1.1	1.1	-
2014F	2,679	67	17	56	33.3	556	82.7	4.7	1.2	1.5	-
2015F	2,864	118	69	232	313.8	606	20.0	4.1	1.1	5.8	-
2016F	3,011	158	113	383	65.3	652	12.1	3.7	1.0	8.8	-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스카이라이프(053210)

매수(유지)

목표가: 29,000원(하향)

종가(10/1): 22,250원

일회성 비용 반영으로 3분기 실적은 부진할 전망

■ NDS와의 CAS 소송 패소로 3분기 일회성 비용 210억 반영 예상

스카이라이프는 전일 글로벌 셋톱박스 솔루션 업체인 NDS와의 CAS(Conditional Access System) 관련 국제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은 양사 간의 CAS공급 계약만료 시기(2010년 연말)과 로열티 지급금액의 인식 차이였다. 패소판결로 동사가 NDS에 지급해야 하는 배상금은 249억원이다. 동사는 해당 배상금을 3분기에 전액 비용 반영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설정된 충당금이 일부 있지만, 40억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돼 3분기에 일회적으로 반영되는 비용은 210억원으로 분석된다. 추정충당금 40억원은 2012년 2분기에 일회적으로 발생했던 가입자 관련 지급수수료 증가분 수준이다.

■ 3분기 영업이익 94억원으로 기존 추정치를 크게 하회할 전망

210억원의 일회성 비용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94억원으로 기존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각각 71%, 68% 하회할 전망이다. 다만, 일회성 비용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은 304억원으로 전년 동기 및 전분기 대비 각각 7%, 75% 증가가 추정된다. 홈쇼핑송출수수료 협상완료로 플랫폼 매출액 증가, HD전환 관련 마케팅비용 감소, 연초 회계 기준 변경에 따른 방송발전기금 미반영(2분기 일시 반영)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하지만, 3분기 이후 순증가입자 반등과 홈쇼핑송출수수료의 지속적인 성장에 주목

3분기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4분기부터의 방향성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1) DCS 재개, 합산점유율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가 예상되어 순증가입자는 3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전망이다. 2) 홈쇼핑송출수수료도 신규업체의 시장진입 가능성, 경쟁사 대비 현격히 낮은 가입자당 매출규모(2분기 기준 가입자당 분기 송출수수료: CJ헬로비전 4,501원 vs. 현대HCN 4,331원, vs. 스카이라이프 1,947원 추정)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동사의 2014년, 2015년 홈쇼핑송출수수료 매출은 979억원, 1,14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 증가할 전망이다.

■ 목표주가 12% 하향 조정하나 투자 의견 '매수' 유지

동사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 33,000원에서 29,000원(12MF EPS 1,901원에 목표 PER 15배 적용)으로 12% 하향 조정한다. 3분기 일회성 비용을 반영해 2014년 EPS추정치 20% 하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3분기 실적부진으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예상되지만, 4분기부터의 모멘텀 회복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을 추천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566	66	56	1,174	93.7	130	28.5	11.6	4.6	17.7	1.0
2013A	623	99	73	1,527	30.1	173	19.4	7.7	3.5	19.6	1.5
2014F	646	90	69	1,447	(5.3)	175	15.4	5.7	2.4	16.3	2.0
2015F	678	129	98	2,052	41.8	224	10.8	4.2	2.0	20.2	2.0
2016F	720	143	108	2,264	10.4	250	9.8	3.6	1.7	19.1	2.0

주: 순이익,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GKL(114090)

매수(유지)

목표가: 52,000원(유지)

종가(10/1): 40,600원

확장과 신사업 가시화가 관건

■ 3분기 양호한 드롭액 성장세, 그러나 홀드율 하락 예상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7.3%, 30.3% 감소한 1,434억원과 468억원으로 예상된다. 드롭액은 적극적인 마케팅 등에 따른 중국인 드롭액 고성장과 일본 VIP 및 로컬 드롭액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1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년동기 홀드율이 16%로 평소(2013년 연간 홀드율 14%) 대비 높았고, 마케팅 강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으로 매출액은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홀드율은 12.8%를 가정했다. 금년부터 개별소비세가 판매비가 포함되는데 이는 영업이익률을 하락시키는 변수다.

■ 기존 영업장 확장, 신사업 구체화가 실적 및 주가 상승의 관건

기존점 확장, 인천 영종도 등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선상카지노 도입 등의 신사업 구체화가 실적 및 주가 상승의 관건이다. GKL의 기존 3개 영업장은 내년 계약 만료가 예정돼 있다. 각각의 영업장은 확장 및 이전 등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확장 여부 및 시점 등에 대한 아웃라인이 연내에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영업장은 9월 중순 마감된 영업장 선정 재입찰 결과에 따라 이전 혹은 확장 규모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점의 경우 영업장 면적이 40% 확장돼 내년 하반기 이후 실적 반영을 가정하면 드롭액과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대비 각각 8%, 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8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영종 복합리조트 사업 관련해 금년 하반기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공모 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 내년 상반기에 영종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GKL은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2006년 개장 이래 외국인 전용카지노 상위업자로 자리매김하며 카지노 사업을 잘 운영해 왔기 때문에 추가 라이선스 획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 가시성 높은 확장 성장 스토리 유효해 매수 유지

GKL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52,000원을 유지한다. 목표주가는 12개월 forward EPS에 목표 PER 22배를 적용해 산출했다. GKL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중국인 VIP, 일반(Mass) 고객 증가 등으로 드롭액 성장이 예상된다. GKL은 현재 몇가지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다. 강남점 등 기존 영업장의 확장·이전과 증설 계획이 가시화되면 추가적인 수익 성장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신사업으로 추진중인 영종 및 제주 복합리조트와 선상카지노 사업 진출 등에 따른 모멘텀이 기대된다. 금년 배당 성향은 전년과 유사한 53%로 예상하나, 정부의 정책에 따른 배당 성향 상향 가능성은 존재한다.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DY (%)
2012A	502	146	144	2,329	127.7	161	12.3	9.0	5.3	52.1	4.2
2013A	561	191	138	2,224	(4.5)	202	18.2	10.3	6.3	37.8	2.9
2014F	543	160	116	1,873	(15.8)	171	21.7	12.2	5.6	27.4	2.5
2015F	631	204	153	2,478	32.3	215	16.4	9.5	4.8	31.4	3.3
2016F	715	237	180	2,909	17.4	249	14.0	7.9	4.1	31.7	3.9

*상기 보고서는 2014년 10월 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9/25(목)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2,034.11	2,031.64	2,026.60	2,020.09	1,991.54	1,976.16
	등락폭		-1.53	-2.47	-5.04	-6.51	-28.55	-15.38
	등락종목	상승(상한)	357(4)	305(2)	255(1)	395(4)	190(6)	446(5)
		하락(하한)	452(2)	499(0)	576(4)	440(0)	648(0)	384(0)
	ADR		97.85	93.25	89.06	88.32	85.38	88.02
	이격도	10 일	99.60	99.53	99.33	99.12	98.06	97.65
		20 일	99.18	99.14	99.01	98.83	97.62	97.08
	투자심리		50	40	40	30	20	20
	거래량	(백만 주)	325	314	340	323	352	319
	거래대금	(십억 원)	4,767	3,924	4,482	4,736	4,441	4,637
코스닥	코스닥지수		577.48	577.66	569.27	573.22	566.99	569.84
	등락폭		-2.94	0.18	-8.39	3.95	-6.23	2.85
	등락종목	상승(상한)	357(6)	305(11)	255(6)	395(7)	190(7)	510(9)
		하락(하한)	452(5)	499(1)	576(3)	440(2)	648(1)	437(1)
	ADR		94.47	92.45	88.80	87.00	82.95	86.38
	이격도	10 일	100.38	100.29	98.77	99.44	98.50	99.12
		20 일	100.86	100.81	99.33	99.99	98.93	99.41
	투자심리		50	40	40	30	20	20
	거래량	(백만 주)	434	398	409	387	388	329
	거래대금	(십억 원)	2,649	2,267	2,389	2,390	2,595	2,104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047.0	1,179.6	1,368.2	199.5	197.7	368.9	109.6	42.1	450.443
	매도	1,946.4	1,547.6	1,126.9	214.7	218.5	215.2	80.8	49.1	348.6
	순매수	100.6	-368.0	241.4	-15.1	-20.8	153.6	28.8	-7.0	101.9
	10 월 누계	245.0	-565.4	276.5	14.7	-5.2	162.0	-12.7	-11.1	128.9
	14 년 누계	-28.4	6,935.7	-5,521.5	-3,158.8	572.8	-2,893.4	-542.0	-2,010.9	2,510.9
코스닥	매수	1,803.1	169.3	144.9	34.9	20.7	42.6	12.7	3.6	30.3
	매도	1,864.9	133.4	117.7	35.2	12.7	30.0	10.2	2.5	27.2
	순매수	-61.8	35.9	27.2	-0.4	8.0	12.6	2.6	1.2	3.2
	10 월 누계	-33.2	-2.8	37.5	-2.2	14.8	22.1	-2.2	4.4	0.6
	14 년 누계	301.2	766.3	-91.2	-10.8	159.0	-260.9	-82.6	-33.6	142.5

주: 외국인인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4,922
전기,전자	20,576
운수장비	16,974
KODEX 레버리지	16,620
기아차	10,342
SK텔레콤	10,283
한국전력	9,918
현대모비스	9,042
섬유,의복	-922
비금속광물	35
종이,목재	37
KODEX 200	-117,878
SK	-4,774
하나금융지주	-4,435
대우조선해양	-4,202
LG화학	-4,064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12,655
통신업	11,027
증권	9,652
SK텔레콤	11,337
LG이노텍	8,794
기아차	7,757
KODEX 200	4,995
현대백화점	4,666
금융업	-12,257
건설업	-10,691
서비스업	-2,809
OCI	-14,250
현대차	-10,432
대림산업	-9,744
강원랜드	-5,540
아모레G	-4,47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2,811
건설업	1,452
전기,전자	1,006
KODEX 레버리지	19,010
KODEX 200	3,802
TIGER 200	3,006
LG화학	2,304
두산	2,127
운수창고	-8,320
서비스업	-4,251
통신업	-1,583
팬오션	-8,275
엔씨소프트	-5,223
KT	-1,670
KODEX 인버스	-1,668
LS	-1,423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15,361
서비스업	11,189
유통업	7,052
삼성화재	17,012
KINDEX200	13,973
기아차	5,975
한국전력	4,343
SK텔레콤	4,138
전기,전자	-25,744
운수장비	-14,219
화학	-11,876
KODEX 200	-38,362
삼성전자	-20,140
현대차	-8,008
LG화학	-7,504
현대건설	-6,67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통신업	41,611
서비스업	40,612
유통업	39,988
SK텔레콤	35,022
기아차	24,408
NAVER	21,005
한국전력	19,318
삼성화재	17,987
KODEX 인버스	16,037
SK하이닉스	13,936
아모레퍼시픽	12,831
LG이노텍	11,871
현대백화점	11,622
건설업	-20,825
금융업	-16,231
운수창고	-4,279
KODEX 레버리지	-137,042
OCI	-22,940
KODEX 200	-17,294
대림산업	-15,541
현대중공업	-13,903
SK	-10,497
하나금융지주	-8,879
엔씨소프트	-8,587
팬오션	-8,372
KB금융	-8,186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5,162
금융업	13,006
증권	5,526
LG전자	24,985
SK하이닉스	22,786
하나금융지주	11,021
KODEX 200	10,016
OCI	9,705
KT	8,831
TIGER 200	6,242
CJ제일제당	5,248
삼성생명	4,582
롯데케미칼	4,208
운수장비	-125,089
서비스업	-82,857
화학	-54,153
현대차	-58,877
NAVER	-39,180
현대모비스	-34,562
SK텔레콤	-32,253
삼성전자	-23,376
LG화학	-21,021
아모레퍼시픽	-19,820
삼성화재	-17,307
기아차	-17,052
한국전력	-14,76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오락,문화	3,849	인터넷	-3,136
소프트웨어	2,572	방송서비스	-1,351
제약	2,353	반도체	-1,192
파라다이스	3,596	다음	-3,137
매일유업	1,729	서울반도체	-1,756
로엔	1,277	이지바이오	-1,283
바이오랜드	967	SK브로드밴드	-830
KG모빌리언스	959	GS홈쇼핑	-798

연 기 금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화학	2,121	인터넷	-561
인터넷	539	제약	-266
기계,장비	465	반도체	-96
에이블씨엔씨	2,771	CJ오쇼핑	-561
로엔	818	매일유업	-188
다음	658	컴투스	-183
한국사이버결제	439	나이스정보통신	-168
동국S&C	433	이오테크닉스	-114

(체결기준: 백만원)

보 험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2,247	디지털컨텐츠	-4,543
인터넷	1,726	오락,문화	-4,179
통신서비스	1,428	소프트웨어	-1,580
다음	1,728	게임빌	-4,339
게임빌	1,430	파라다이스	-4,123
SK브로드밴드	1,411	로엔	-4,070
한국사이버결제	1,065	에이블씨엔씨	-2,986
리홈쿠펜	1,048	리홈쿠펜	-2,404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6,436	디지털컨텐츠	-5,157
제약	6,424	오락,문화	-4,562
의료,정밀기기	3,166	인터넷	-1,045
메디톡스	2,339	파라다이스	-5,030
에스엠	2,179	컴투스	-4,027
KG이니시스	2,026	게임빌	-3,282
소리바다	1,929	넥슨지티	-1,510
선데이토즈	1,763	다음	-1,204
GS홈쇼핑	1,670	서울반도체	-981
성우하이텍	1,559	CJ E&M	-894
한국사이버결제	1,537	원익IPS	-881
이지바이오	1,224	동서	-823
고영	1,051	블루콤	-75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8,943	소프트웨어	6,436
오락,문화	5,994	제약	6,424
소프트웨어	4,943	의료,정밀기기	3,166
게임빌	5,608	메디톡스	2,339
파라다이스	5,485	에스엠	2,179
로엔	3,224	KG이니시스	2,026
에이블씨엔씨	3,146	소리바다	1,929
리홈쿠펜	2,957	선데이토즈	1,763
매일유업	2,621	GS홈쇼핑	1,670
KH바텍	2,595	성우하이텍	1,559
한국사이버결제	2,473	한국사이버결제	1,537
바이오랜드	1,757	이지바이오	1,224
CJ E&M	1,587	고영	1,051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소프트웨어	6,436	디지털컨텐츠	-5,157
제약	6,424	오락,문화	-4,562
의료,정밀기기	3,166	인터넷	-1,045
메디톡스	2,339	파라다이스	-5,030
에스엠	2,179	컴투스	-4,027
KG이니시스	2,026	게임빌	-3,282
소리바다	1,929	넥슨지티	-1,510
선데이토즈	1,763	다음	-1,204
GS홈쇼핑	1,670	서울반도체	-981
성우하이텍	1,559	CJ E&M	-894
한국사이버결제	1,537	원익IPS	-881
이지바이오	1,224	동서	-823
고영	1,051	블루콤	-752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SK텔레콤	33 일	종산	13 일
롯데칠성	19 일	CJ제일제당	10 일
대한제강	18 일	현대미포조선	9 일
삼성화재	15 일	하나금융지주	9 일
한국셀석유	15 일	유한양행	8 일
NAVER	15 일	효성	8 일
SK네트웍스	14 일	빙그레	8 일
고려아연	14 일	대우증권	8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이트레이드증권	9 일	성우하이텍	14 일
에이블씨엔씨	9 일	크루셜텍	10 일
SK브로드밴드	5 일	동양시멘트	9 일
포스코켄텍	4 일	덕산하이메탈	5 일
위메이드	4 일	성광벤드	4 일
동서	3 일	메가스터디	4 일
파라다이스	3 일	네패스	3 일
한국토지신탁	3 일	CJ오쇼핑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NAVER	233,672	삼성전자	163,365
SK하이닉스	109,965	하나금융지주	65,670
SK텔레콤	105,881	OCI	31,817
기아차	79,721	SK하이닉스	29,417
KODEX 인버스	74,101	LG화학	26,350
삼성화재	51,530	POSCO	21,085
삼성물산	40,800	CJ제일제당	20,271
한국전력	40,533	SK이노베이션	19,450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리홈쿠첸	18,334	GS홈쇼핑	7,955
셀트리온	18,279	성우하이텍	7,938
게임빌	10,189	KH바텍	7,660
파라다이스	8,408	오스템임플란트	6,318
삼천당제약	5,112	다음	6,012
바텍	5,075	CJ오쇼핑	4,051
인터파크	4,491	아가방컴퍼니	3,575
매일유업	4,190	성광벤드	3,368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13,897	15,162	29,059
증권	12,436	5,526	17,962
의약품	5,640	3,848	9,487
SK하이닉스	13,936	22,786	36,722
롯데케미칼	3,963	4,208	8,171
미래에셋증권	3,444	2,355	5,799
대우증권	5,016	725	5,741
삼성생명	628	4,582	5,210
삼성증권	1,125	2,766	3,891
LG생명과학	2,501	877	3,378
한국콜마홀딩스	2,467	300	2,767
효성	1,721	675	2,396
CJ CGV	1,817	151	1,968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소프트웨어	4,943	6,436	11,379
의료,정밀기기	3,342	3,166	6,509
화학	3,815	2,192	6,007
한국사이버결제	2,473	1,537	4,009
리홈쿠첸	2,957	700	3,657
에이블씨엔씨	3,146	129	3,275
바이오랜드	1,757	685	2,442
인터파크	1,267	689	1,956
아프리카TV	1,140	815	1,955
선데이토즈	128	1,763	1,891
KT뮤직	836	922	1,757
뉴웍스	1,566	154	1,720
바이넥스	1,388	171	1,55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세종공업	14 일	한진중공업	22 일
KOSEF 블루칩	14 일	고려아연	20 일
TIGER 현대차그룹+	14 일	SK텔레콤	19 일
삼성전자	12 일	한화	12 일
TIGER 라틴	11 일	KCC	12 일
TIGER 레버리지	11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11 일
KINDEX 레버리지	11 일	대상	11 일
팬오션	10 일	KPX케미칼	11 일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GS홈쇼핑	20 일	우주일렉트로	8 일
STS반도체	11 일	토탉	8 일
코미팜	10 일	동서	6 일
인터플렉스	9 일	서울반도체	6 일
성우하이텍	8 일	현진소재	6 일
차바이오텍	7 일	동진세미켐	5 일
태광	5 일	휴맥스	5 일
성광벤드	4 일	시그네틱스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394,292	SK텔레콤	-100,488
삼성전자	-97,019	기아차	-73,679
하나금융지주	-61,426	현대차	-72,052
POSCO	-57,269	삼성화재	-63,206
LG화학	-52,534	삼성SDI	-34,823
OCI	-45,079	LG유플러스	-33,247
삼성전기	-37,133	아모레퍼시픽	-33,049
SK이노베이션	-35,512	KCC	-28,271

K O S D A Q			
기 관		외 국 인	
에스엠	-15,242	파라다이스	-19,191
서울반도체	-14,960	서울반도체	-18,037
다음	-10,305	게임빌	-4,890
GS홈쇼핑	-8,614	동서	-2,737
성우하이텍	-7,223	NICE평가정보	-2,411
이지바이오	-3,571	넥슨지티	-2,208
솔브레인	-2,646	바이오랜드	-1,692
태광	-2,597	한국정보통신	-1,637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 O S P 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건설업	-20,825	-16,196	-37,021	
운수창고	-4,279	-5,463	-9,743	
의료정밀	508	410	917	
현대차	-7,742	-58,877	-66,618	
삼성전자	-4,996	-23,376	-28,372	
현대중공업	-13,903	-2,876	-16,779	
대림산업	-15,541	-942	-16,484	
POSCO	-4,204	-9,975	-14,179	
SK	-10,497	-1,620	-12,116	
대우조선해양	-7,228	-4,070	-11,298	
현대건설	-6,958	-3,980	-10,938	
강원랜드	-3,250	-5,851	-9,101	
엔씨소프트	-8,587	-371	-8,958	

K O S D A 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인터넷	-4,179	-1,045	-5,225	
숙박,음식	0	0	0	
숙박,음식	0	0	0	
다음	-4,123	-1,204	-5,327	
블루콤	-524	-752	-1,276	
셀트리온	-541	-639	-1,180	
MPK	-924	-200	-1,124	
코스온	-453	-353	-806	
하나마이크론	-591	-151	-742	
한국정보통신	-2	-680	-683	
파인디지털	-653	-17	-671	
코프라	-540	-120	-660	
원익QnC	-388	-26	-41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LG전자	316	20,020	
POSCO	62	19,817	
NAVER	11	8,798	
삼성전자	7	7,891	
LG	101	7,500	
LG디스플레이	224	7,306	
KODEX 200	275	6,982	
삼성전기	145	6,90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다음	46	7,734	
셀트리온	118	5,729	
서울반도체	240	5,463	
파라다이스	115	3,931	
에스엠	49	1,839	
선데이토즈	74	1,476	
씨젠	23	1,270	
리움쿠첸	60	943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 O S P 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356	5,035,545	
POSCO	4,904	1,557,117	
SK하이닉스	26,098	1,210,947	
LG전자	14,974	940,375	
신한지주	17,845	854,763	
KODEX 200	31,554	797,222	
NAVER	983	790,631	
현대중공업	5,701	758,22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8,030	865,441	
CJ E&M	815	551,342	
다음	2,273	378,506	
파라다이스	8,784	297,779	
위메이드	1,131	246,144	
서울반도체	8,321	185,975	
컴투스	957	165,499	
에스엠	2,140	80,025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 O S P I			
순 증		순 감	
전기,전자	3,676	통신업	-656
운수장비	2,290	종이,목재	-320
화학	1,699	음식료품	-50
대우조선해양	2,075	삼성중공업	-2,227
KODEX 200	2,007	LG유플러스	-867
한진중공업	1,421	쌍방울	-545
한진해운	1,342	한솔홈데코	-518
한화케미칼	1,079	보해양조	-450
SK하이닉스	985	기아차	-422
삼성전기	900	두산인프라코어	-327
SK증권	880	호텔신라	-312
현대산업	761	대호에이엘	-251
대현	702	OCI	-23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K O S D A Q			
순 증		순 감	
반도체	1,837	인터넷	-585
음식료,담배	1,760	소프트웨어	-151
디지털컨텐츠	1,597	일반전기전자	-77
이지바이오	1,614	다음	-650
서울반도체	705	대아티아이	-275
KT뮤직	702	셀루메드	-212
차이나그레이트	674	바른전자	-200
에스엠	374	한글과컴퓨터	-183
성광벤드	352	오스템임플란트	-144
지엔코	348	크루셜텍	-133
넥슨지티	337	하림홀딩스	-130
파라다이스	297	이큐스앤자루	-102
유진테크	236	팜스웰바이오	-95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외국인	6,935.7	-565.4	-348.1	-23.4	55.8	184.9	-197.4	-368.0
기관계	-5,521.5	276.5	248.3	19.9	-64.6	16.4	35.2	241.4
(투신)	-2,893.4	162.0	320.6	53.3	57.1	48.2	8.3	153.6
(연기금)	3,920.9	51.7	-64.2	-43.4	-43.1	-29.4	36.7	15.0
(은행)	-2,010.9	-11.1	-10.3	7.3	-4.3	-2.2	-4.1	-7.0
(보험)	572.8	-5.2	-18.5	14.0	-23.6	-3.7	15.5	-20.8
개인	-28.4	245.0	135.8	4.4	-10.1	-103.5	144.5	100.6
기타	-1,385.8	43.9	-36.0	-1.0	18.9	-97.8	17.8	26.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1	2012	2013	9/25(목)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KOSPI	1,825.7	1,997.1	2,011.3	2,034.1	2,031.6	2,026.6	2,020.1	1,991.5
고객예탁금	17,680.2	18,014.3	14,211.8	14,737.7	15,095.6	16,123.9	15,602.7	17,106.1
(증감액)	1,996.5	3,611.7	334.1	-513.4	357.9	1,028.3	-521.2	1,503.4
(회전율)	34.2	26.7	29.9	50.3	41.0	42.6	45.7	41.1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494.1	196.8	1,042.2	-514.5	1,549.4
신용잔고	44,763.0	39,124.0	41,828.0	5,390.2	5,394.7	5,403.1	5,402.8	5,365.3
미수금	1,877.0	1,241.0	929.0	164.9	145.1	145.3	129.7	153.6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9/25(목)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전체 주식형	76,595	-7,903	22	180	17	87	-50	22
(ex. ETF)		-5,579	32	77	2	69	17	32
국내 주식형	59,403	-5,777	32	167	26	88	-43	32
(ex. ETF)		-3,452	42	64	11	70	25	42
해외 주식형	17,192	-2,126	-10	13	-9	-1	-8	-10
(ex. ETF)		-2,126	-10	13	-9	-1	-8	-10
주식 혼합형	10,148	86	-5	-39	19	11	2	-5
채권 혼합형	25,211	1,268	-137	-33	126	10	64	-137
채권형	65,627	4,957	812	346	-60	252	-1	812
MMF	85,362	17,932	349	-1,944	-1,656	144	-1,632	34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한 국	6,899	-550	-1,378	-22	53	175	-186	-364
대 만	9,631	-443	-1,033	-99	-409	-147	-239	-204
인 도	13,814	0	64	-40	38	-26	-	-
인도네시아	4,200	-32	91	-117	-45	-74	-32	-
태 국	-37	51	359	-4	-54	-13	51	-
남아공	2,698	116	380	79	75	69	116	-
필리핀	1,312	-11	42	-11	67	-3	-11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3년	9/25(목)	9/26(금)	9/29(월)	9/30(화)	10/01(수)	10/02(목)
회사채 (AA-)	3.29	2.71	2.70	2.71	2.68	2.61	2.63
회사채 (BBB-)	8.98	8.46	8.45	8.46	8.43	8.36	8.38
국고채 (3년)	2.86	2.33	2.31	2.32	2.30	2.22	2.25
국고채 (5년)	3.23	2.56	2.54	2.54	2.0	2.43	2.43
국고채 (10년)	3.58	2.95	2.92	2.91	2.85	2.80	2.83
미 국채 (10년)	2.97	2.50	2.53	2.48	2.49	2.38	-
일 국채 (10년)	0.74	0.53	0.52	0.52	0.53	0.53	-
원/달러	1,055.40	1,042.60	1,044.40	1,053.80	1,055.20	1,062.65	1,061.40
원/엔	1,003.99	955.19	956.50	963.87	963.04	970.81	969.67
엔/달러	105.12	109.15	109.19	109.33	109.57	109.46	109.46
달러/유로	1.38	1.27	1.27	1.27	1.27	1.26	1.26
DDR3 1Gb (1333MHz)	1.37	1.42	1.42	1.42	1.42	1.42	-
DDR3 2Gb (1333MHz)	2.54	2.24	2.24	2.24	2.24	2.24	-
NAND Flash 16Gb (MLC)	3.43	2.40	2.42	2.42	2.42	2.42	-
CRB 지수	280.17	279.84	280.95	283.82	279.21	278.58	-
LME 지수	3,182.9	3,109.5	3,106.9	3,116.2	3,091.6	3,075.2	-
BDI	2,277	1,038	1,049	1,062	1,063	1,055	-
유가 (WTI, 달러/배럴)	98.47	92.53	93.54	94.57	91.16	90.73	-
금 (달러/온스)	1,189.10	1,213.75	1,213.75	1,219.50	1,216.50	1,216.5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29	30	10/1	2	3
韓> 8월 경상수지 (달러) (72.7억, n/a, 78.4억) 美> Evans 연준이사 연설 8월 미결주택매매 MoM (-1.0%, -0.5%, 3.2%)	韓> Powell 연준이사 연설 8월 광공업생산 SA MoM (-3.8%, 0.1%, 1.5%) 美> 7월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YoY (6.75%, 7.40%, 8.07%) 9월 시카고 구매자협회지수 (60.5, 62.0, 64.3) 9월 소비자가대지수 (86.0, 92.5, 93.4) 유럽> 9월 예상 소비자물가지수 YoY (0.3%, 0.3%, 0.4%) 中> 9월 HSBC 제조업 PMI (50.2, 50.5, 50.5) 日> 8월 예비 광공업생산 MoM (-1.5%, 0.2%, 0.4%)	韓>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1%, 1.5%, 1.4%) 9월 HSBC 제조업 PMI (48.8, n/a, 50.3) 9월 수출 YoY (6.8%, 6.9%, -0.2%) 9월 수입 YoY (8.0%, 6.5%, 3.1%) 中> 9월 광방 제조업 PMI (51.1, 51.0, 51.1) 美> 9월 ADP 취업자 변동 (21.3만, 20.5만, 20.2만) 9월 ISM 제조업지수 (56.6, 58.5, 59.0)	美> Lockhart 연준이사 연설 8월 제조업수주 (n/a, -9.0%, 10.5%) 유럽> ECB 금리 결정 (n/a, 0.050%, 0.050%)	美> 9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n/a, 21.0만, 14.2만) 9월 실업률 (n/a, 6.1%, 6.1%) 8월 무역수지 (달러) (n/a, -407억, -405억) 유럽> 8월 소매판매 MoM (n/a, n/a, -0.4%)
6	7	8	9	10
독일> 8월 공장수주 MoM (n/a, n/a, 4.6%)	日> 일본중앙은행 본원통화목표 (n/a, 270조엔, 270조엔) 8월 예비 선행지수 (n/a, n/a, 105.4) 독일> 8월 산업생산 SA MoM (n/a, n/a, 1.9%) 美> George 연준이사 연설 Kocherlakota 연준이사 연설 Dudley 연준이사 연설 실적발표> 美 연	日> 9월 경기관찰조사 현행 (n/a, n/a, 47.4) 8월 경상수지 (엔) (n/a, 2333억, 4167억) 美> 9월 FOMC 의사록 공개 버냉키 전 연준의장 연설 실적발표> 美 코스트코, 몬산토, 알코아	日> 8월 기계수주 MoM (n/a, 0.6%, 3.5%) 美> Bullard 연준이사 연설 Williams 연준이사 연설 드라기 ECB총재 연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 실적발표> 美 펍시	中> 9월 신규 위안화 대출(~15일) (n/a, 7500억, 7025억) 美> Plosser 연준이사 연설 9월 재정수지 (달러) (n/a, 720억, 751억) 세계은행/IMF 연례 총회
13	14	15	16	17
中> 9월 수출 YoY 9월 수입 YoY	美>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유럽> 8월 산업생산 SA MoM	韓> 9월 실업률 SA 금통위 금리 결정 中> 9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日> 8월 최종 광공업생산 MoM 독일> 9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9월 소매판매 추정 MoM 연준 베이지북 공개	美> 9월 광공업생산 MoM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전망 10월 NAHB 주택시장지수 유럽> 9월 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美> 9월 주택착공건수 10월 예비 미시간대 기대지수 유럽> Eurostat GDP 전망 발표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